

에버랜드, "나이트 사파리로 실감나는 맹수 탐험"

용인 에버랜드는 '나이트 사파리 트램'을 시작했다. 7층 50여 마리의 맹수들이 있는 사파리를 돌면서 투명한 트램 통창으로 맹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계에 200여 마리 밖에 안 되는 희귀동물인 백사자들이 합류했다. 회당 약 20분으로 4월 10일까지 매일 밤 운영한다.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진행한다.



'지프의 시작과 끝' 랭글러

민첩해진 5세대...친환경 4xe 모델도 인기 폭발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오프로드 자동차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독보적인 오프로드 강자인 지프(JEEP) 랭글러(WRANGLER)의 계절이다. 특히 올해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등장하면서 과연 이들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최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랭글러는 랭글러다"라는 한마디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4륜구동 능력, 충성도 높은 고객 등을 보유한 지프의 스테디셀러인 '랭글러'라는 모델 자체가 전략이라는 뜻이다.



SUV의 원조인 지프 랭글러는 독보적인 존재감과 압도적인 4륜구동 능력으로 수많은 마니아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프의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5세대 랭글러(위 사진)와 태양열 충전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지프 랭글러 4xe. 사진제공 | 스텔란티스코리아

강인한 매력, 고객 충성도 높아 5년간 판매대수 2배 이상 성장 여성 운전자 사용 편의성 제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 4xe 전기모드만으로 약 32km 주행

●지프, 모든 SUV의 시작

SUV의 원조인 지프 랭글러의 전신은 지프가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해 제작했던 미군의 군용차다. 당시 군용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랠어야 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이 최우선으로 강조됐으며, 기동성과 내구성까지 고루 갖춰야 했다. 이때부터 각진 차체에 루프 없이 개방된 사륜구동 SUV 형태는 정통 SUV의 기반이 됐다.

이후 최초의 민간용 지프이자 처음 세븐 슬롯 그릴을 적용한 'CJ'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랭글러 시대가 열렸다. '랭글러'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세대인 'YJ'부터다. 1987년 출시된 'YJ'는 7슬롯 그릴에 와이드 트랙, 각진 그릴, 직사각형 헤드램프, 모던한 인테리어를 갖춰 지금의 현대적인 랭글러의 모습을 완성했다. 이후 랭글러는 10여 년마

다 완전 변경 차종을 선보여 왔으며, 현재는 5세대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5세대 랭글러와 친환경 모델4xe의 등장

5세대 랭글러는 2018년 국내 출시됐다. 1세대부터 고수해온 지프 DNA에 모던한 디자인을 더해 한층 세련된 외관을 완성했다.

정통 SUV의 상징인 바디 온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알루미늄을 사용해 차체 무게를 떨어냈으며 파워트레인도 3.6 V6 자연흡기 엔진에서 2.0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다운사이징했다. 그러면 출력은 272마력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고 최대 토크(40.8kg.m)는 오히려 약간 늘어 몸놀림은 더 민첩해졌

다. 연료 효율성은 6.6km/L에서 9.0km/L로 약 36% 향상됐다. 또한 수동 개폐식 하드톱에 자동 방식인 파워톱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랭글러 4xe를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4xe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 고압 배터리팩, 첨단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총 3가지 주행 모드(하이브리드, 일렉트릭, e세이프)를 제공한다. 전기모드만으로 약 32km를 주행할 수 있다.

●랭글러, 지프 1만대 클럽 가입 1등 공신

랭글러의 존재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직 상승 중이다. 한국수입차협회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425대에 불과했던 랭글러 연간 판매는 2021년 3127대로, 5년 간 2배 이상 성장했다.

지프 전체 판매 중에서 랭글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0%에서 지난해 30%까지 증가했다. 2019년 지프의 첫 '1만대 클럽' 입성의 1등 공신인 셈이다.

지프 랭글러는 클래식한 멋을 자랑하는 외관 디자인과 독창적인 실내 디자인, 바위를 타고 넘고 계곡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오프로드 성능, 76cm의 도장 능력 등을 앞세워 4륜구동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다. 랭글러의 강인한 매력은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이끌어 내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올해 더욱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랭글러'는 '터프한 남성만 타는 차'라는 편견을 깨고 여성 고객을 적극 공략해 고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5세대 랭글러는 모든 오프로드 기능을 여성 운전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이 개선되었으며,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감성 역시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상당히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도전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고려대의료원, '제4병원 건립' 본격 추진

고려대의료원이 안암·구로·안산병원에 이어 제4병원 건립을 공식화했다.

고려대의료원은 18일 고려대 의과대학 문석의학관 1층 운영주홀에서 '미래병원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단장인 김병조 의무기획처장(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을 주축으로 원내의 미래의학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가칭 '미래병원'으로 명명된 제4병원은 고도화된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최첨단 의과학 연구, 혁신 의료인재 양성을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로서 지역의료 체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생 의료기관을 지향한다. 고려대의료원은 디지털 이노베이션, 정밀의학 특성화 진료, 연구중심 연계시스템, 인재양성, 교육 및 진료 분야 협력확장 등 제4병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원은 연내 주요 사항들을 확정하고 착공 등 세부계획을 조율해 고려대 의과대학 탄생 100주년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5대 암 질환',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

위암·대장암,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율 높아져

건강검진은 신체 전반에 걸쳐 질환 및 이상 여부를 살펴보는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인해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당해 6월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사업장을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흡수, 짝수년도로 나누어 해당년도 출생자가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크게 나뉜다. 일반검진은 가족력이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암검진은 주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을 진행한다.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할수록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아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여성 자궁경부암도 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국가 암검진은 건강보험료 하위 50%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수 있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만큼 평상시 이상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내과를 방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효과적 대처법이다.

인천 다정형내과 최현식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교육을 위해 강남 대신 시흥 찾도록 만들 것"

임병택 시장 '교육도시 시흥' 청사진 제시

10년간 탄탄한 교육 인프라·자원 쌓아 서울대와 협력해 양질의 콘텐츠 구축도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시범운영 예정



임병택 시흥시장

인구 57만의 경기도 시흥이 도시 발전을 이끌 미래의 원동력으로 '교육'을 제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이나 목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를 찾도록 수준 높은 교육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청사진 실현이 가능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교육 인프라 덕분이다. 시흥시는 10여 년간 혁신교육을 실행하면서 탄탄한 한국형 지방교육자

치 모델을 만들었다. 서울대와 11년간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로 입지를 쌓았다. 그 결과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비롯해 한국공학대

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 캠퍼스가 시에 자리하고 있다. 시흥시는 교육도시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과 이에 따른 교육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플랫폼 및 콜센터를 구축했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혁신교육은 더욱 강화한다. 전국 최초의 동별 교육협의체인 마을교육자치회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과 돌봄, 평생교육 등 교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 19개 동이 동별 특성에 맞는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교육자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역에 자연과 역사, 문화, 4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체득할 교육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교육도시 시흥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축구장 크기의 600배가 넘는 호조벌에서는 모시, 추수 등의 체험과 함께 300년 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낙조로 유명한 오이도에는 선사시대 유적이 있다. 2020년 개장한 세계 최대 인공서평장 웨이브파크에서는 서평 등 해양레저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바이오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서울대 시흥캠퍼스, 육해공 무인인공체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드론 교육훈련센터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역량을 함양하는 훌륭한 배움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시흥시는 이러한 교육자원을 한 눈



시흥시와 서울대가 진행한 교육협력사업 선포식. 시흥시는 서울대와 11년에 걸친 교육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구축했다. 또한 의료·바이오 분야의 전초기지로 기대를 모으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에 유치했다. 사진제공 | 시흥시

에 파악하도록 시흥형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4월 중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임 시장은 "교육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희망"이라며 "누구도 포기하

지 않는 교육, 누구나 교육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